

# 이정은6 “도쿄올림픽 출전하고 싶다”

US오픈 우승자인 이정은6(사진)가 도쿄올림픽 출전 욕심을 밝혔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정은6는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최한 US여자오픈 트로피투어 행사에 참석했다. US 여자오픈 트로피가 미국 밖에서 공개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순은으로 제작된 이 트로피에는 '2019 JEONGEUN LEE6' (2019 이정은6)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3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이정은6은 4위까지 올라갔다. 개인 최고 성적이다. 랭킹 15위 이내 선수들은 국가별로 최대 4명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받는데, 이정은6은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하이 트진로)과 2위 박성현(26·솔레이어)에 이어 한국인 선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라왔다. 이 순위를 유지한다면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8위에 자리한 박인비(31·KB금융그룹)가 이정은6의 뒤를 잇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정은6은 올림픽 출전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올해 초까지는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양 챔피언십 컷타락 후 스위스에 있는 올림픽 박물관을 갔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심장이 뛸 것 같다'라는 목표가 생기더라. 그 순간이 소중한 순간이었다."면서 "올 겨울에 지금까지 했던 훈련보다 혹독하게 훈련하면서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꼭(그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은6은 지난 6월 열린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LPGA 투어 데뷔 후 첫 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수확했다. 이정은6은 이날 우승 당시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정은6은 동명이인을 구분할 목적으로 '이정은6'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은6은 동명이인을 구분할 목적으로 '이정은6'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 손흥민, 아시아 선수 최초 FIFPro 월드 베스트11 후보



손흥민(27·토트넘·사진)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가 선정한 월드 베스트11 후보에 올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FIFPro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4-3-3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 베스트11 후보에 선정된 선수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서 손흥민은 공격수 15명에 포함됐다.

아시아 선수가 FIFPro 선정 월드 베스트 11 후보에 뽑힌 건 손흥민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나이와 상관없는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한국 대표팀의 금메달 사냥에 앞장섰다. 또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등 A매치에서 성인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는 총 51경기에 출장해 20골을 사냥했다.

특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박지성(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결승 무대에 올라 준우승을 경험했다.

베스트11 공격수 15명에는 손흥민 외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해리 케인(토트넘), 라힘 스텔링, 세르히오 아레로(이상 맨체스터 시티),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무함마드 살라흐, 호베르투 피르미누, 사디오 마네(이상 리버풀),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이상 파리 생제르맹),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 등이 포함됐다.

# 론조 볼 “르브론이 최고인 이유 알겠다”

미국프로농구(NBA)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유망주 가드 론조 볼(22)이 전 소속팀 동료 르브론 제임스(35·LA 레이커스)를 칭찬했다. 볼은 올 여름 레이커스에서 뉴올리언스로 팀을 옮겼다. 지난 시즌에는 제임스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볼은 전날 빅보이 TV를 통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제임스는 내게 다른 의미가 있었다."며 "제임스는 정말 성실한 선수다. 특히 몸 관리에 있어서는 미친 수준이었다. 제임스가 오랫동안 리그 최고 수준에서 뛰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고 칭찬했다.

르브론은 베테랑임에도 여전히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NBA 통산 16시즌을 뛰면서 올

스타 15회, MVP 4회, 파이널 MVP 3회 등의 성적을 남겼다. NBA 파이널에 총 9번 올라 3번의 우승도 차지했다.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평균 득점 27.4점, 리바운드 8.5개, 어시스트 8.3개의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제임스는 지난 해 12월 사타구니 부상을 당한 탓에 정규리그 55경기 밖에 뛰지 못했다. 레이커스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볼은 매 순간 노력하는 제임스를 보며 감탄을 쏟아냈다.

볼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47경기에서 평균 득점 9.9점, 리바운드 5.3개, 어시스트 5.4개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발목 부상을 당해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부엌 & 화장실 Remodeling 전문 회사**

**각종 최신 캐비닛, Stone Counter Top 취급합니다**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신용/정직/좋은 가격 & 실력있는 회사!!**

CA Lic #:1051205

**Pine Tree Construction** 주정부 면허회사  
필립 안에게 전화 주세요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